

## 보도자료

제 목	백남준아트센터-서울로미디어캔버스 대외협력 특별전 《백남준의 도시: 뉴욕에서 서울까지》		
문 의	학예팀 박상애 (t. 031-201-8557, m. 010-2704-4540)		
자 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로 다운로드		
배 포	2019.10.02.	쪽 수	총 5 쪽

# 백남준아트센터-서울로미디어캔버스 대외협력 특별전 《백남준의 도시: 뉴욕에서 서울까지》

▶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비디오아트 작품 <모음곡 212>(1975/1977) 서울로 미디어캔버스에서 야외 상영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주최하는 서울로미디어캔버스 대외협력 특별전(展) 《백남준의 도시: 뉴욕에서 서울까지》가 2019년 9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만리동 광장의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상영되는 <모음곡 212>(1975/1977)는 1970년대 뉴욕의 이모저모를 전자 꼴라주 방식으로 편집한 백남준의 대표 비디오 작품이다. 뉴욕의 공영방송 채널 WNET/Channel 13의 텔레비전 실험 프로젝트 TV Lab에서 제작한 <모음곡 212>는 약 30여 편의 짧은 비디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백남준아트센터 비디오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대표 작업을 중심으로 총 13점을 상영한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보관광 네트워크 서울로에 설치된 대형 야외 스크린을 통해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을 상영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일부가 된 예술작품을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의 이름을 사용하는 세계 유일의 미술관이다. 2001년 작가 백남준과 경기도는 아트센터 건립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백남준은 생전에 그의 이름을 딴 이 아트센터를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고 명명했다. 2008년 10월에 개관한 백남준아트센터는 작가가 바랐던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을 구현하기 위해 백남준의 사상과 예술 활동에 대한 창조적이면서 비평적인 연구를 발전시키는 한편, 이를 실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백남준의 도시: 뉴욕에서 서울까지》

서울로미디아캔버스  
 2019 3rd EXHIBITION  
 9.21. — 12.19.

서울로미디아캔버스  
 18-00-23100

대외협력 특별전  
 '백남준의 도시:  
 뉴욕에서 서울까지'

PACKAGE1

모음곡 212-1인용	00.04.21
모음곡 212-중요 곡수	00.04.02
모음곡 212-스케치북	00.04.12
모음곡 212-4인용 작품	00.04.47
모음곡 212-원도 작업본	00.04.19
모음곡 212-그랜드 캔버스본	00.03.13

PACKAGE2

모음곡 212-확장 에디션	00.03.02
모음곡 212-광주 박물관	00.03.03
모음곡 212-미국 현대미술	00.03.34
모음곡 212-확장판 스케치	00.03.08
모음곡 212-서버 아카이브	00.04.42
모음곡 212-웹사이트 운영	00.03.47
모음곡 212-리치먼드 미술	00.03.34

대외협력전 VCRWORKS  
 '보이지 않는'

영화 내일 문학 예술디립	00.00.27
영화 우리는 함께	00.00.37
영화	00.01.00
디스캐버스	00.03.47
비디오 영상	00.10.30
파라디소 공과	00.06.22
백남은 없구나	00.08.10

네이처 프로젝트(Nature Project)

김민나	무지개 및 비 오는 날
이재욱	피플, 새, 새소의 연구

시각영상전

정희영	특이한통 안뜰기
조유연	바람부는 서울총정

지대한 상징성을 지닌 시퀀스 영상은 30여편의 서울로미디아캔버스(서울로미디아 캔버스)를 구성한다.  
 서울로미디아캔버스는 서울특별시 용문로(남북로)에 위치한 한층 더한 문화공간이다.  
 서울로미디아캔버스는 서울로미디아캔버스(서울로미디아 캔버스)를 구성한다.  
 문의: 02-844-2097

백남준 <모음곡 212-확장 에디션> 1975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 099018

서울특별시 / AOC / 후원: 800개 / ?-? = ∞ / VCRWORKS / 00.03.02

### 서울로미디아캔버스 대외협력 특별전 <<백남준의 도시: 뉴욕에서 서울까지>>

- ◎ 일 시 : 2019년 09월 21일 (토) ~ 2019년 12월 19일 (목)
- ◎ 장 소 : 서울로미디아캔버스
- ◎ 참여작가 : 백남준
- ◎ 상영작품 : 백남준 <모음곡 212> (1975/1977) ※ 세부작품목록은 상영목록 참조
- ◎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와 서울특별시는 서울로미디아캔버스 대외협력 특별전 <<백남준의 도시: 뉴욕에서 서울까지>>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9년 9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만리동 광장 앞 서울로미디아캔버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상영되는 <모음곡 212>(1975/1977)는 30여 편으로 구성된 비디오 연작으로 1970년대 뉴욕을 전자꼴라주

방식으로 편집한 백남준의 대표작이다. 백남준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모음곡 212> 중 13편을 선정하여 전시 기간 동안 매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매시 5분부터 30분씩 반복 상영한다. 뉴욕이라는 거대도시를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을 또 다른 거대도시 서울의 도심에서 상영함으로써, 40년의 시간차를 두고 1970년대의 뉴욕과 2019년의 서울을 병치한다. 이 전시는 작품을 통해 무빙이미지로 제공되는 도시 단상과 실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도시 단상이 간극을 생성하며 새로운 공간적 체험을 제공한다. 대형 야외 스크린에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을 상영하는 이번 공동기획전은 도시 경관의 일부가 된 예술작품을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백남준 <모음곡 212> (1975/1977)



백남준, <모음곡 212: 티벳 박물관>, 1974



백남준, 모음곡 212\_패션 애비뉴, 1975

<모음곡 212>(1975/1977)는 1970년대 뉴욕의 이모저모를 전자 꼴라주 방식으로 편집한 백남준의 대표 비디오 연작이다. 뉴욕의 공영방송 채널 WNET/Channel 13의 텔레비전 실험 프로젝트 TV Lab에서 제작한 <모음곡 212>는 약 30여 편의 짧은 비디오로 구성되어 있다. 1975년 4월 한 달 동안 WNET/Channel 13에서 매일 밤 방송된 이 연작은 3분~8분 내외의 비디오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뉴욕 맨해튼의 지역번호 212를 표제로 차용한 이 연작은 뉴욕의 역사, 인물, 풍경, 명소 등을 백남준 식의 유쾌한 방식으로 편집한다. 직접 촬영한 뉴욕의 풍경, 뉴요커들의 인터뷰, 뉴스 및 광고 풋티지 등을 중첩, 반복, 변형 등의 신디사이징 효과를 넣어 편집하고, 재즈나 클래식 음악들을 배경 사운드로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방송국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작된 이 작품은 백남준과 존 고드프리, 더글라스 데이비스, 저드 알커트, 프레드 바직, 데이빗 앳우드 등 다양한 작가와 방송 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다. 방송을 마치고 1977년에 대표작을 선정하여 30분 버전으로 발췌 편집하였다.

■ 상영목록

구성	연번	작품명	연도	상영시간
A	1	모음곡 212: 린제이	1975	4:21
	2	모음곡 212: 중국 국수	1975	4:02
	3	모음곡 212: 스케이트	1974	4:12
	4	모음곡 212: 티벳 박물관	1974	4:47
	5	모음곡 212: 워드 아일랜드	1975	4:19
	6	모음곡 212: 그랜드 센트럴	1975	3:13
B	7	모음곡 212: 패션 애비뉴	1975	3:02
	8	모음곡 212: 항구 박물관	1975	3:03
	9	모음곡 212: 미국 인디언	1974	5:34
	10	모음곡 212: 워싱턴 스퀘어	1975	5:09
	11	모음곡 212: 시티 아일랜드	1975	4:42
	12	모음곡 212: 앤소니아 호텔	1975	2:47
	13	모음곡 212: 리치몬드 타운	1975	5:32

상영시간

A 패키지는 매일 오후 6시 5분, 8시 5분, 10시 5분부터 30분 동안 상영.

B 패키지는 매일 오후 7시 5분, 9시 5분부터 30분 동안 상영.

비디오 소장: 백남준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

## 故 백남준(1932.7.20~2006.1.29)



백남준, 1963. / 사진: 만프레드 몬테베

백남준은 1932년 종로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홍콩을 거쳐 일본으로 이주, 도쿄대학교에서 미학을 전공하였다. 1956년 독일로 건너가 유럽 철학과 현대 음악을 공부하면서 기존의 예술 규범과는 다른 급진적 퍼포먼스로 예술 활동을 펼쳤다. 1963년 독일 부퍼탈에서 열린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을 통해 비디오 아티스트의 길에 들어섰다.

1964년 미국으로 이주한 백남준은 본격적으로 비디오를 사용한 작품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일본의 공학자 아베 슈야와 영상을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개발하였고, 음악과 신체에 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백남준만의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위성 기술을 이용한 텔레비전 생방송을 통해 전위 예술과 대중문화의 벽을 허무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1996년 이후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와중에도 레이저 기술을 도입한 작품을 선보이는 등 2006년 마이애미에서 타계할 때까지 백남준의 예술적 실천은 멈추지 않았다.

백남준은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이자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해왔던 예술가로 여전히 가장 '현대적인 예술가'로서 우리 곁에 숨 쉬고 있다.